시네마 통해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 이해해 볼까

하정웅미술관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프로그램 주목
터너·반 고흐부터 세라핀 루이·헬렌 쉐르벡까지 망라
조대영씨 기획,여성 예술가들의 삶까지 함께 조명 시도

하정웅미술관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프로그램(기획 조대영)을 본격 가동한다. 사진은 지난 3월 25일 올들어 처음으로 선보인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고야의 유령'편 진행 모습.

미술관에서 보여주는 영화는 어떨까. 그런데 예술가를 다룬 영화라면 더더욱 매니아(마니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일 것이다. 미술관 밖에서는 고의로라도 선택해 관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립미술관 분관인 하정웅미술관이 올들어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프로그램(기획 조대영)에 대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2016년 출발해 올해로 11회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영화를 매개로 예술가의 삶과 시대, 그리고 작품 세계를 입체적으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인문예술 콘텐츠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술사 거장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반면에 기존과는 다른 시선에서 여성 예술가들의 삶까지 함께 조명해 프로그램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특히 첫번째로 다뤄진 프란시스코 고야를 위시로 윌리엄 터너와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 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화가들에서부터 세라핀 루이, 헬렌 쉐르벡 등 상대적으로 조명이 적었던 여성 화가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분야 내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다.

첫 번째 시간(3월 25일)에는 '고야의 유령'을 다뤘다. '고야의 유령'은 18세기 종교재판의 광풍과 프랑스 혁명의 열풍이 휘몰아치던 시대를 배경으로 신부에서 혁명가로 변신한 야심가와 종교재판에 스러져간 여인의 이야기다. 영화는 당대의 화가였던 프란시스코 고야의 시선으로 허구의 두 주인공을 관찰하며 비극과 아이러니를 극대화시켜 몰입감을 더한다. 영화를 연출한 밀로스 포먼 감독은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와 '아마데우스'로 유명한 거장이다.

이어 오는 29일에는 '라이프'를 다룬다. '라이프'는 스타가 되기 이전의 제임스 딘과 사진작가 데니스 스톡의 운명적인 만남을 절묘한 드라마로 풀어냈다. 사진작가 출신 안톤 코빈이 연출한 영화는 1950년대의 정경과 인물의 내면을 차곡차곡 쌓아간 점이 돋보인다.

또 5월 27일에는 윌리엄 터너를 만난다. '미스터 터너'는 윌리엄 터너의 인생 후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의 인생 후반기는 이미 명성이 자자했던 윌리엄 터너가 실험적인 화풍에 도전했던 시기다. 영화를 연출한 마이크 리는 '괴벽스럽고 종잡을 수 없는' 인물로 윌리엄 터너를 접근했고, 역사적 기록에 상상력을 더해 윌리엄 터너의 양면성을 파고든다.

여기다 6월 24일에는 프랑스 상리스 출신의 여성 화가인 세라핀 루이와 함께한다. 세라핀 루이는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지 않고 독학으로 작업했으며, 낮에는 하녀로 일하고 밤에는 촛불 밑에서 그림을 그렸다. '세라핀'은 극도의 궁핍한 생활에서도 그림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세라핀 루이의 우직한 삶을 생생한 시대 배경 속에 펼쳐냈다.

이후에도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 헬렌 쉐르벡, 게르하르트 리히터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모든 상영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진행된다.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 해설이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돼 관객이 작품과 예술가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로그램 기획자인 조대영씨는 광주의 대표적인 영화 전문가로, 영화평론집 '영화, 롭다'를 출간했으며, 원작 소설과 영화를 함께 읽고 감상하는 모임 '20세기소설영화독본'을 18년째 이어오고 있다. 현재는 '동구 인문학당'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조대영씨는 강연자로도 참여해 영화와 미술을 넘나드는 해설을 제공하고, 상영 이후에는 실제 작품 이미지와 함께 예술가의 표현 방식과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감상의 깊이를 이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시작돼 오는 10월까지 이어지며 별도의 사전 신청없이 행사 당일 하정웅미술관을 방문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문화리뷰 '예술의 날' 허공의 메아리 돼서야

예술가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는 날 되길

유명무실한 날로 예술가들 대다수 외면 현실
창작공간서 기억되지 못해… 기념하기는 한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예술가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예술의 날'이라는 게 있다. 캘린더를 보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감 1도 없는 날이 아닌가 싶다. '예술의 날'을 두고 한 말이다. 15일이 '예술의 날'이다. 책상 위 캘린더 그 어디에도 '예술의 날'은 찾을 수 없다. 지정된 날이지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기념만을 위한 날인 듯하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중 '예술의 날'이라고 기념식을 여는 단체를 일찌기 본 적이 없다. 유명무실의 날이 '예술의 날'이 아닌가 싶다. 예술의 날을 아는 예술가 자신이 예술의 날 밥상을 차려 먹어야 하는 처지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예술의 날이 어느 정도 존재감이 없는가는 캘린더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4월만 우선 살펴보자. 3일이 4·3희생자 추념일이자 향토예비군의 날, 7일이 보건의 날, 11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16일이 국민 안전의 날, 19일이 4·19혁명기념일, 20일이 장애인의 날, 21일이 과학의 날, 22일이 정보통신의 날이다. 달력 안에서조차 '예술의 날'은 존재감이 없다.

'예술의 날' 유래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네스코가 인류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한 예술가 중 한 명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일을 기념해 제정한 날이 '세계 예술의 날'(World Art Day)로 지정한데서 유래됐다. 더욱이 하반기에 '예술가의 날'이 있어 헷갈리기는 하다. '예술가의 날'은 22년전인 지난 2004년 캐나다의 예술가 크리스 맥클루어(Chris MacClure)가 10월 25일을 '국제 예술가의 날'(International Artist Day)로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예술의 날'이 예술적 창의성을 장려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제 예술가의 날'은 화가나 조각가 등 모든 시각 예술가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민간 차원의 기념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좋은 취지로 출발했겠지만 뜻있는 예술가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내는 물론이고 지역 예술가들에게 거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가들에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날이 돼야 하지만 분주한 일상 속 아무런 인식도, 느낌도 없다보니 이것을 기리고자 하는 예술가도, 관련 단체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예술가 복지는 그에 준하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개의 예술가들은 예술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것보다는 다른 직업을 가지거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전업작가더라도 작품이 팔리지 않거나 하면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술은 배 고파야 한다고 하는 따위의 말은 이제 옛말이다. 배 곪아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배 고프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이를테면 예술인들을 위한 생활 안정 자금으로 올해 4월 기준 327.8억원 규모로 전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는 그리 피부에 다가오지 않는 숫자에 불과하다.

예술활동준비금도 그렇다.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1인당 연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들었지만 이 또한 혜택을 누리는 몇몇의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 사회나 기업 등에 돈이 흐르지 않으면 침체될 수 밖에 없는 이치처럼 예술계 역시 마찬가지다. 화가의 경우 재료비 구입마저 점점 어려워져간다면 그것은 침체의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라도 정부정책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술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한다. 예술가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된다면 '예술의 날'이나 '예술가의 날'이 좀더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허공의 메아리'일 수 밖에 없다. '예술의 날'이 예술가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는, 명실상부한 날이기 되기를 기원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지역 문화예술계는 15일이 '예술의 날'이지만 기념식 등 관련 행사없이 지나치기 일쑤다. 유명무실한 날이나 마찬가지여서 실질적으로' 예술의 날'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열린 광주시립미술관의 '찬미와 탐미'전 개막식 모습.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명창 꿈꾸는 소리꾼들 판소리 다섯 바탕 '자웅'

'제2회 향산주소연 판소리 경연대회' 18~19일 보성 봉갑사

전통 판소리의 계승과 저변 확대를 위한 경연대회가 보성에서 열린다.

향산주소연판소리보존회(대표 주소연)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보성 봉갑사 특설무대에서 '제2회 향산주소연 판소리 경연대회'를 펼친다.

향산주소연 판소리 경연대회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인 주소연 명창의 호를 딴 경연대회로, 판소리 전통예술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 마련됐다. 학생부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일반부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경연은 판소리 다섯 바탕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예선과 본선을 거쳐 수상자를 가린다. 경연 시간은 초등부 4~5분, 중등부 6~7분, 고등부 8~10분, 일반부 13~15분으로 구성된다.

시상은 부문별로 차등 지급된다. 일반부 대상은 200만원, 고등부 100만원, 중등부 70만원, 초등부 50만원을 각각 받는다. 2, 3등 수상자에게도 상금이 지급된다.

대회 기간에는 특별초청 공연이 마련된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인 김수연 명창을 비롯해 김병혜, 고은정, 강경아 명창 등이 무대에 올라 전통 판소리의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소연 대표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에서 판소리의 맥을 잇기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며 "참가자와 관람객 모두가 전통예술의 가치를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신날

참가 신청은 16일까지 전화 접수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한편, 대한불교 조계종 호남삼갑 봉갑사 주관 향산주소연판소리보존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국악방송과 광주불교방송, 사단법인 한국판소리보존회광주지부가 후원한다. 문의 010-9474-0980.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GGN '소년의 길 인문 라디오투어' 방문진 공모 선정

방송문화행사지원 부문…"지역 기반 경쟁력 입증" 밝혀

GGN 글로벌광주방송이 방송문화진흥회 공모사업에서 방송문화행사지원 부문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지역 방송의 공공성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전국 방송사 및 제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글로벌광주방송은 지역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기획력과 콘텐츠 확장성을 인정받아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방송문화행사 부문 선정작 '소년의 길-소설과 도시를 함께 걷는 인문 라디오 투어'은 한강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의 배경인 5·18 사적지를 실제로 걸으며 라디오 생방송을 동시에 체험하는 '라디엔티어링'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출발해 광주천변을 따라 5·18민주광장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구성된다.

소설 낭독과 현장 해설, 시민 인터뷰, 음악, 퀴즈 미션 등을 라디오 생방송과 결합해 참가자가 '듣는 사람'을 넘어 '출연자'가 되는 참여형 콘텐츠로 운영될 방침이다.

한·영 이중언어로 진행돼 광주시민은 물론 이주민과 외국인 관광객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체험형 콘텐츠로,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다.

GGN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지역 기반 콘텐츠의 공공성과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이야기와 시민의 삶을 담은 콘텐츠를 통해 공익적 가치 확산과 지역 방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GN 글로벌광주방송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행사와 방송 콘텐츠를 연계한 새로운 지역 콘텐츠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콘텐츠의 전국 및 글로벌 확산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